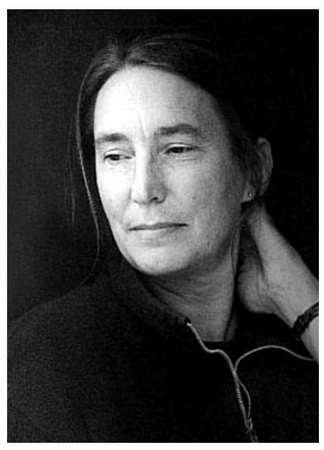
스타작가들 광주극장·무각사·대인시장에 예술 옷 입힌다

올 광주비엔날레, 40개국 92명의 작가 참여
설치작품 50%… 아이웨이웨이·제니홀저 등
김주연·이정록 등 지역작가 10명 역대 최다

아이웨이웨이


제니홀저

마이클 주

김수자

서도호

올 가을 광주에서는 어느 때보다 풍성한 현대예술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내외 스타 작가들과 젊은 작가들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광주시립미술관, 광주극장, 무각사, 대인시장 등에서 새롭고 실험성 높은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끌어들일 태세다.

◇40개국 작가 92명(팀)이 모인 '라운드 테이블'=9회 광주비엔날레(9월 7일~11월 11일) 기간에는 40개국에서 92명(팀)의 작가가 광주를 찾게 된다.

한국에서는 16명(팀)이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인도·일본 출신 참여작가가 각각 3명이고 중국에서는 6명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인다. 이외 홍콩·쿠웨이트·키르기스스탄·대만·싱가포르·카타르·팔레스타인·이란 출신 작가가 각각 1명씩 참여하는 등 아시아 출신 작가만 44명(팀)에 이른다.

아시아의 대표적 비엔날레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데 따른 사명과 자신감을 갖고 광주비엔날레만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한 작가 선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이념, 사회, 정치, 문화적 차이를 넘어 다양한 논의를 나눌 수 있는 개념인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주제를 구현할 세계 여러 나라 작가들도 빠트리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크리스 마커(프랑스), 하룬 미르자(영국) 등 26명, 미주 지역에서는 알란 세쿨라와 노엘 버치, 앨런 캐프로, 제니 홀저 등 13명, 오세아니아 5명, 아프리카 5명의 작가가 비엔날레에 작품을 내놓는다.

◇아이웨이웨이, 김수자 등 스타 작가의 작품이 한 자리에=광주비엔날레는 인지도가 높은 국내외 작가들이 참여, 새롭게 작품을 선보이게 돼 눈길이 쏠린다. 이번 전시 작품의 50% 이상이 설치 작품인데다, 회화에 익숙한 대중에겐 '설치미술=어렵다'는 편견이 있는 점에도 불구,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스타 작가들로 인해 관객 몰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선, 제 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 감독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계 인사인 아이웨이웨이가 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 '시민 광장'(communal space)이라는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이 작품은 시민과 작가가 만나는 공간으로, 작가간 의견을 나누고 관람객들과 토론하는 장소로도, 워크숍을 열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로는 해외 여행에 제한을 받고 있어 그의 첫 해외 여행지가 광주가 될 수 있을 지도 최대 관심사다.

1990년 베니스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미국 출신 개념미술가 제니 홀저도 눈여겨볼 작가다.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베를린 국회의사당 등 건물 벽면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건물 전면에 영어 문장을 투사하는 등 빛의 띠 작품은 유명하다.

또 200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독일 설치 작가 토비아스 레베르거는 비엔날레 전시관 입구를 리모델링해 작품으로 선보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10명의 생존작가'에 꼽히는 등 대표적인 설치미술가인 서도호씨도 대인시장, 카톨릭대학 기숙사 방 등 역사적 흔적이 담긴 작품을 '프로타주' 방법으로 만들어 내놓는다.

보따리를 늘어 놓는 설치, 보따리를 트럭 가득 싣고 떠나는 퍼포먼스 등으로 유명한 김수자씨의 작품도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전시로 꼽힌다.

5년 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현대미술축제 중 하나인 제 13회 카셀 도큐멘타(Kassel dOCUMENTA·6월 9일~9월 16일)에 국내 작가로는 20년만에 초청받아 세계 무대에 자신을 각인시킨 문경원·전준호씨도 신작을 내놓고 관객들과 만난다.

이외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2001), 선미술상(2007) 등을 수상한 김범, 지난 2006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영상설치물 '보디 옵푸스케터스'로 대상을 받은 한인 2세 예술가 마이클 주(44·한국명 주우정),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2관왕에 오른 황지해도 참여작가에 포함됐다.

◇역대 최대 지역 작가 참여, '광주정체성'표출=올 광주비엔날레는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10명의 지역작가가 참여한다. 여지껏 지역 대표 문화 이벤트임에도 지역 작가들의 참여가 적었다는 점 때문에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담아내려는 행보로 받아들이는 긍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지역에서는 ▲김주연 ▲이정록 ▲조현택 ▲최미연 ▲황지해 ▲비빔밥(박상화·장한별·이매리·김한열·강운) 등 5명의 작가, 1개의 아티스트 그룹이 참여한다.

최미연·조현택씨의 경우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공모'를 통해 선정된 35세 미만의 젊은 작가로 실험성 높은 작품을 선보이게 된다.

사진작가 이정록은 '일시적 만남들'이라는 소주제에 맞춰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조성된 획일화된 농촌주택들의 30년 변천사를 100장이 넘는 사진으로 담아내는 '글로컬사이트'(Glocal Site)라는 작품으로 시간의 흐름과 시대의 원형적 경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된다.

영상·컴퓨터공학·디자인·문학을 아우르는 융합 작품을 추진해온 비빔밥은 인문학적인 무등산 풍경을 그려낸 '숲, 숨, 쉼 그리고 집'이라는 작품을 선보인다. 자궁을 모티브로 한 공간 구조물에 영상 작업을 더하는 방식의 작품으로 스피드 시대 '쉼'의 담론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외 김주연은 '일시적 만남들'이라는 소주제에 따른 작품을 내놓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양각이면서도 음각인

최태화 '일상과 네거티브'전
내달 5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독특하다. 푹 팬 음각이면서도 어느새 볼록 튀어나온 듯한 양각으로 바뀐다. 음각과 양각의 결합이 절묘할 정도다.

조각가 최태화씨가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여는 '일상과 네거티브'전은 작가만의 독보적 공간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전시다.

광주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초대전으로, 20년 넘게 유럽에서 활동을 하며 국제 콩쿠르(GIUSEPPE PESCETTI) 조각부문 1등상, 세라믹아트 국제콩쿠르(GUALDO TADINO) 금상 등을 수상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다.

'비너스의 탄생'

전시에서는 조각이란 반드시 양각이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여지없이 깨트리는 작품 21점이 선을 보인다. 얼핏 양각이면서도, 얼핏 음각인, 공간 파악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채워졌다.

'비너스의 탄생', '성모자' 등의 조각 작품에는 양각과 음각을 하나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주물러대는 작가만의 탁월한 형태 감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도 바오로', '십자가 신비 속의 그리스도' 등 종교적 색채가 담겨 있는 작품도 적지 않고 움푹 들어간 '네거티브' 조각에서는 죽음·허무·고뇌·인생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는 작가의 역량도 엿볼 수 있다. 문의 062-223-6677.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韓 태싯그룹·泰 사라웃·벨기에 예술연합회 카브라
亞예술극장 공연작품안 국제공모 최종 선정

한국의 태싯그룹 등 3팀이 예술극장 공연작품안 국제공모에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9일 '2012 예술극장 공연작품안 국제공모'에서 한국 태싯그룹, 태국 사라웃, 벨기에 예술연합회 카브라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14일부터 5월25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16개국 70개(국내 37개, 해외 33개) 작품이 접수됐으며프리 라이젠(벨기에) 아시아예술극장 예술감독 등이 심사를 맡았다.

태국 사라웃 팀의 '소원, 거짓말 그리고 꿈 》》 굉장히도 훌륭한'은 어린이, 장애인, 예술가, 사람들의 소망과 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쌍방향의 열린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다.

벨기에 '카브리'의 작품 '이곳'은 벨기에와 한국의 무용가와 안무가가 협업하는 프로젝트며 한국 '태싯그룹'의 '태싯.퍼폼'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오디오-비주얼 작품이다.

각 작품에는 개발 지원금으로 각 1000만원이 주어지며 오는 9월16일~23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창작 레지던시에서 첫선을 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톡톡! 현대미술' 강좌
오늘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은 10일 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문화센터 이론강좌인 '톡톡! 현대 미술'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강의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현대미술'이라는 주제로 김희랑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나서 생생한 이야기 형식으로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한국 현대미술 흐름을 설명할 예정이다.

매월 한 차례 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톡톡! 현대 미술'강좌는 일반 관람객들이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시립미술관 전시기획자들이 직접 설명하기 때문에 개론적 설명에서 벗어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문의 062-613-7150.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